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2, 381-396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1년간 추적연구*

김 은 이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수급 여부, 생활 사건 스트레스,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빈곤 가정 밀집 지역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 483명을 대상으로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지표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하고 1년 후에 다시 평가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생활 사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보고하게 하였다. 1, 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한 336명(남 162명, 여 174명)의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수급 여부 및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적응지표 및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성별과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수급 여부 및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수급, 생활 사건 스트레스,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 선도연구자지원사업H20020).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경자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 02-365-4354 / E-mail : kjoh@yonsei.ac.kr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이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문제는 자연 치유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Jolande, Van der Valk, Edwin, Van der Oord, Frank, Verhulist, Dorret와 Boomsma(2003)는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의 지속성과 관련된 종단연구에서 같은 환경에서는 문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Jones와 Forehand(2003)도 환경 조건이 지속되면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지속되며 따라서 가족중심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소년이 가진 문제는 그들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현재 적응뿐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지속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중재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선 빈곤을 들 수 있다. 빈곤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좌절뿐 아니라, 가족내의 부정적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Alpern & Lyons-Ruth, 1993), 우울, 또래관계 문제, 품행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can & Brooks-Gunn, 1997; Mayer, 1997). 또한 주요 정신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대조집단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stello, Angold, Burns, Stanl, Tweed, Erkanli, & Worthman, 1996). 이렇듯 빈곤가정의 열악한 환경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스트레스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인데, 부정적인 사건뿐 아니라 긍정적 사건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정적 생활 사건은 아동의 내적 적응 및 외현화 행동의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Holmes, Yu & Frentz, 1999),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지표와 부정적 생활 사건에의 노출 수준은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Compas, 1987). Robinson과 Hilsman(1995)은 중학생 대상의 종단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은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Johnson(1986)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많은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듯 스트레스 사건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적응상 문제의 지속 및 변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가족 관련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이다. 부모의 우울증, 문제성 음주, 약물남용, 그리고 아동 학대 및 방임 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Alpern & Lyons-Ruth, 1993; Kadushin & Martin, 198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이로 인한 부정적 경험에의 노출이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우울, 문제성 음주, 가정 폭력 등 가족내 열악한 환경이 빈곤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에 중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오경자, 김은이, 도례미와 어유경, 2005).

한편, 가족 내의 환경 중 부모의 양육 행동은 빈곤 가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는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의 하나로 나타났으며(오경자 등, 2005), 서구의 연구에서 부모가 엄격하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는 경우 자녀의 반사회적 일탈 행동 및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며(Haapasalo & Tremblay, 1994; Peterson, Hawkins, Abbott, & Catakano, 1994), 학업성취의 수준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Baldwin, Baldwin, & Cole, 1990).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 또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데, 회피적 대처방식은 부모가 평정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며(Gomez, Bounds, Holmberg, Fillarton, & Gomez, 1999), 높은 수준의 수동적 대처방식과 낮은 수준의 적극적 대처방식은 우울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Krenke (2000)는 종단 연구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대처방법과의 관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지지 요인이다. 가족의 도움이나 신앙 등의 지지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McLoyd, 1990; Werner & Smith, 1992),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빈곤 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DuBois 등(1994)은 또한 스트레스 사건과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과 행동적 문제의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수한 대인관계 기술,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특성도 빈곤한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wen, Work, & Wyman, 1997; Luthar, 1991).

기존의 연구에서는 열악한 환경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어(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he, 1995; Luthar, 1995, 1999; 오경자 등, 2005),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 사건에 따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된다. 보호요인의 영향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 국내의 빈곤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가 여자청소년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오경자 등, 2005).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의 청소년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국내에서의 빈곤 관련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으로 인한 적응 문제는 국가나 사회에서의 빈곤에 대한 제도적인 차이뿐 아니라 가치관 및 태도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청소년의 적응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그 변화에 수급 여부와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성별에 따라 영향력의 양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1년 후 적응의 변화 및 지속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 지역에서 정부의 생활보호지원 대상을 포함한 빈곤 계층의 가족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K중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1차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483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1년 후인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각각 2학년과 3학년이 된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자료 분석에 사용된 척도들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학생의 자료를 제외하고, 1차 설문과 2차 설문에 모두 응답한 336명(남학생 162명, 여학생 174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우울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CES-D는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이주영, 2000; Garrison, Addy, Jackson, et al., 1991). 지난 일주일간의 정서 상태를 묻는 20개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부터 '매일 있었다'까지의 4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1차 시기의 내적 합치도는 .89이고, 2차 시기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외현화 문제행동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199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SR)"에서 공격성 척도와 비행 척도의 문항에 Buhrmester(1992)의 "행동 연구 조사(Activities Survey)"에서 일탈 행동을 측정하는 7문항들을 추가하여 총 35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기존 K-YSR의 문항으로는 청소년기 문제행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탈행동의 일부를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성적인 행동, 유흥업소 출입, 공공기물 파괴, 흡연 등의 일탈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보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3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1차 시기에서 .89이고, 2차 시기에서 .90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사건

Kohnson과 McCutcheon(1980)이 개발한 "생활사건 조사표(The Life Event Checklist: LEC)"를 이영자(199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 중,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세 문항을 제거한 3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있다'와 '없다'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또래의 규준집단으로부터 얻은 측정치를 기준으로 사건별로 '1'부터 '3'의 가중치를 주어 전체 스트레스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3이었다.

가족 내 위험요인

가족 내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녀구타, 부부간 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갈등, 부모의 우울 등 5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의 4점 척도(0-3)로 응답하게 하여 다섯 문항에 대한 반응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친구의 비행성향

청소년기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음주 등의 비행행동 5개에 대해, 자신과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해당하는 정도를 '전혀 없다', 일부', '대부분'의 3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안진과 민하영(1998)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중 적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의 두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나 배울 점을 찾으려 애써 봤다' 또는 '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등 18개 문항에 대해 각각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적극적 대처 관련 문항과 회피적 대처문항은 각각 9개 문항이었다.

사회적 지지

부모 및 또래, 그리고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를 수정 · 보완하여 부모에 대한 8개 문항과 또래에 대한 8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부모의 지지 8개 문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점수는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 점수를 합산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자기 유능감

Harter(1988)의 "청소년 자기개념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중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그리고 자기 가치감의 세 소척도를 선택하여 Harter가 사용한 양분식 응답방식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1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4였다.

결 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1차 및 2차 측정변인의 점수를 비교, 검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 결과, 1차와 2차 모두에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였고,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수급 집단에 따른 차이는 스트레스 사건 경험에서만 나타나서, 수급 집단의 학생들이 지난 1년간의 생활 스트레스 사건이 더 많음을 보고하였다. 문제행동의 1차 측정치에서는 수급 여부×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수급 집단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여학생에서는 오히려 비수급 집단의 외현화 문제행동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급 집단 별로 각 시점에서의 변화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1. 설문시기별 측정치의 비교

	수 급		비수급		수급F (1,335)	성별F (1,335)	수급×성별F (1,335)
	남(n=60)	여(n=53)	남(n=102)	여(n=121)			
1차시기 측정치							
우울	16.23(8.81)	21.36(10.47)	16.96(10.02)	19.12(11.69)	.386	8.914 **	1.484
문제행동	12.27(7.40)	9.96(5.66)	9.78(7.16)	10.87(6.51))	1.016	.609	4.688 *
2차시기 측정치							
우울	15.30(6.73)	21.26(12.36)	15.77(8.69)	17.88(9.51)	1.808	13.857 ***	3.178
문제행동	9.18(5.35)	10.77(7.38)	9.09(5.75)	8.86(5.78)	2.105	.967	1.726
스트레스	7.10(6.73)	7.38(5.93)	5.53(6.08)	5.45(5.19)	6.589 *	.022	.06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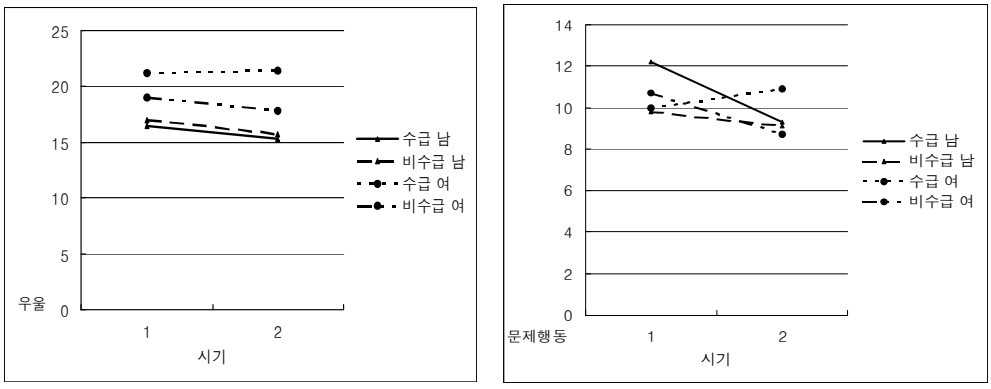

그림 1. 수급-비수급 남여 집단의 시기별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 변화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

1차 시기에 측정된 예측변인이 2차 시기에 측정된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위계적 회귀 분석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1차 시기에서의 적응지표가 2차 시기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여, 나머지 변인이 적응지표의 변화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예측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급 여부, 성별, 스트레스 정도가 각각의 적응지표에 주는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비수급 집단, 남학생이 기준이 되었고,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가 각각 표 2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급×성별 집단의 각각에서 어떠한 위

표 2. 수급 여부, 성별, 스트레스가 2차 우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F	ΔR^2	β
1단계	133.391 ***	.279	
우울 1차 측정치			.475 ***
2단계: 주효과	14.993 ***	.084	
수급			.466
성별			2.224 **
스트레스			.421 ***
3단계:	5.778 ***	.031	
수급×성별			1.627
수급×스트레스			-.189
성별×스트레스			.526 ***
4단계:	2.386	.004	
수급×성별×스트레스			.494
전체 R^2		.402	

* p<.05 ** p<.01 *** p<.001

표 3. 수급×성별 집단에서 우울 변화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영향: 중다회귀분석

	수급				비수급			
	남		여		남		여	
예측변인	F	ΔR^2	F	ΔR^2	F	ΔR^2	F	ΔR^2
1단계								
우울 1차 측정치	21.888 ***	.274	28.761 ***	.365	31.052 ***	.244	44.846 ***	.274
2단계:								
스트레스			9.493 **	.103(1)	11.748 ***	.083(1)	31.645 ***	.154
가족 내 위험요인								
친구 비행 성향	5.775 *	.067						
회피대처								
적극대처								
사회적 지지					6.800 *	.045(2)		
자기 유능감			5.323 *	.053(2)				
전체 R^2		.341		.521		.373		.427

* p<.05 ** p<.01 *** p<.001
( )안은 설명량이 많은 순서

표 4. 수급 여부, 성별, 스트레스가 2차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F	ΔR^2	β
1단계	94.912 ***	.218	
문제행동 1차 측정치			.412 ***
2단계: 주효과	12.525 ***	.078	
수급			.238
성별			.422
스트레스			.282 ***
3단계:	4.903 **	.030	
수급×성별			2.423 *
수급×스트레스			-6.1E-02
성별×스트레스			.251 **
4단계:	.000	.000	
수급×성별×스트레스			7.8E-02
전체 R^2		.326	

* p<.05 ** p<.01 *** p<.001

표 5. 수급×성별 집단에서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영향: 중다회귀분석

	수급				비수급			
	남		여		남		여	
예측변인	F	ΔR^2	F	ΔR^2	F	ΔR^2	F	ΔR^2
1단계								
문제행동 1차 측정치	11.735 ***	.173	29.764 ***	.373	24.976 ***	.210	39.734 ***	.250
2단계:								
스트레스					5.349 *	.043	26.537 ***	.138(1)
가족 내 위험요인								
친구 비행 성향	4.636 *	.064						
회피대처								
적극대처								
사회적 지지							7.525 **	.037(2)
자기 유능감								
전체 R^2		.238		.373		.253		.425

* p<.05 ** p<.01 *** p<.001

( )안은 설명량이 많은 순서

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측정 점수를 통제한 후, 스트레스 점수, 가족 내 위험요인, 친구의 비행성향, 회피대처, 적극대처, 사회적 지지, 자기 유능감의 일반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알려진 변인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이 결과가 표 3과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

2차 시기에 측정된 우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1차 시기의 우울은 2차 시기의 우울 점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으며, 성별과 스트레스 점수의 주효과와 각 변인들간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이에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량을 더했다. 각각의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성별과 스트레스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1차 시기의 우울 점수의 설명량을 통제한 후에도 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을 보고하였다. 이원 상호작용의 효과는, 성별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우울감은 스트레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수급×성별의 각 집단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수급 집단의 남학생은 1차 시기의 우울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친구의 비행성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수급 집단의 여학생의 경우에는, 1차 시기의 우울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스트레스, 자기 유능감이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보였다. 비수급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1차 시기의 우울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여학생의 경우, 1차 시기의 우울감, 스트레스가 유의미했다.

외현화 문제행동

2차 시기에 측정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1차 시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는 2차 시기의 점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으며, 수급 여부와 성별, 스트레스 점수의 주효과와 각 변인들간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이에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량을 더했고, 삼원 상호작용 효과의 추가 설명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의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스트레스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우울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 시기의 점수의 설명량을 통제한 후에도 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원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면, 수급과 성별, 성별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수급 집단 여부와 스트레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수급×성별의 각 집단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수급 집단의 남학생은 우울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 시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역시 친구의 비행성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수급 집단의 여학생의 경우에는, 1차 시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영향만이 유의미하였다. 비수급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1차 시기의 문제행동, 스트레스, 여학생의 경우, 1차 시기의 문제행동,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급 여부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남녀 청소년 336명을 1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 여부에 따른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라 적응지표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우울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의 수준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어, 수급 집단에서 더 많은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1년간의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과 스트레스 사건으로, 여학생일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성별×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여학생의 경우 우울이 지속되는 것에 스트레스가 더 많은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점수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성별, 성별×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여학생의 경우에는,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도 남학생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수급 여부에도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예상된 바와 같이 수급 집단은 다양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비교집단의 청소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령 전기 및 초등학교 연령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에 더 많은 취약성을 보여 외현화 문제행동(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학업부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e, 1995),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열악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도 여아보다는 남아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thar, 1995; Ripple & Luthar,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의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볼 때 여학생의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에 비해서 우울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에 비해서 더 클 수 있어, 적응에 있어 성별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가족 내의 환경으로, 빈곤 가정에서 높은 빈도로 보고되는 부모의 우울, 음주문제, 약물남용 등은 양육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deCubas & Field, 1993),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Bal, Crombez, OOst와 Debourdeaudhuij(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이 높다고 지

각한 청소년들은 보다 적은 수준의 외상 관련 증상을 보고했으며, DuBois, Felner, Meares와 Krier(1994)는 스트레스 사건과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과 행동적 문제의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한다는 연구와 함께(Kessler, Price, & Wortman, 1985), 정서적 지지의 가용성과 필요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은 정신과적 증상의 발현에 있어서 스트레스 환경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다(Cohen & Wills, 1985; Kessler 등, 1985). 자기 유능감은 스트레스 사건이 많은 환경에서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한가지의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Robinson 등(1995)에 의하면 낮은 자기 가치감은 우울감과 상관이 있었으며, 우수한 대인관계 기술,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특성은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최미례와 이인혜, 2003; Cowen, Work, & Wyman, 1997; Luthar, 1991). 또한 자기 유능감이 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쉽고(Bandura, Taylor, Williams, Mefford, & Barchas, 1985), 긍정적인 행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유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도전적인 과제와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유능감을 빨리 회복하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Bandura, 1997). 스트레스 대처방식 역시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데, 회피적 대처방식은 부모가 평정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며(Gomez, Bounds, Hplberg, Fillarton, & Gomez, 1999), 높은 수준의 수동적 대처방식과 낮은 수준의 적극적 대처방식은 우울과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이 수급×성별의 집단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 비수급 집단에서는 지난 1년간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이 적응에 영향을 주었고,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 집단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우울이나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에서 1차 시기의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친구의 비행 성향만이 유의미한 추가 설명량을 보여, 열악한 환경의 남학생의 경우 비행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영향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우울과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의 경우에는 자기 유능감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1차 시기의 문제행동 외에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이 없어, 이 연령의 빈곤층 여학생에서는 일단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에도 그 양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우선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가 적응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가정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같은 청소년 시기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발달 단계상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며,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역시 본 연구의 대상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빈곤의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Duncan & Brooks-Gunn, 1997; Luthar, 1999), 아동으로부터 고등학생 집단에 이르기까지 연령 집단을 확대하여 발달 단계 별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남녀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치를 자기 보고 형식으로 수집하였는데, 자기 보고 형식의 설문지에 반응하는 양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하여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사건 스트레스에는 가족이나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더 낮은 수준으로 보고하는 등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문항의 민감도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대다수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 집단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변화에 수급 여부와 성별,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빈곤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이들에 대한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53-71.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유안진, 민하영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 가정학회지, 36, 83-97.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주영 (2000). 우울한 비행 청소년 집단의 사회정보처리 특성: 비행집단과 우울집단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Alpern, L., & Lyons-Ruth, K. (1993).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home. *Developmental Pssychopathology, 5,* 371-387.

Bal, S., Crombez, G., OOst, P. V., & Debourdeaudhuij, I. (2003).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well-being and coping with self-reported stressful events in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7*, 1377-1395.

Baldwin, A. L., Baldwin, C., & Cole, R. E. (1990). Stress resistant families and stress-resistant children. In J. Rolf, A. Masten, D.

Cichetti, K. Neuchterlein, K., & S. Weintraub. (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andura, A., Taylor, C. B., Williams, S. L., Mefford, I. N., & Barchas, J. D. (1985). Catecholamine secretion as a function of perceived cop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406-414.

Bolger, K. E., Patterson, C.,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Burmester, D. (1992). *Friendship, competence,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Unpublished grant proposal.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 275-302.

Costello, E. J., Angold, A., Burns, B. J., Stangl, D., Tweed, D. L., Erkanli, A. B., & Worthman, C. M. (1996). The great smoky mountains study of you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 1129-1136.

Cowen, E. L., Work, W. C., & Wyman, P. A. (1997).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pp. 527-547). New York: Cambridge.

deCubas M. M., & Field, T. (1993). Children of methadone-dependent women: Developmental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266-276.

DuBois, D. L., Felner, R. D., Meare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522.

Dubow, E. F.,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Duncan, G. J., & Brooks-Gun, J. (1997). Welfare's new rules: A pox on childre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14*, 67-73.

Eckenrode, J., Rowe, E., Laird, M., & Braithwaite, J. (1995). Mobility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6,* 1130-1142.

Garrison, C. Z., Addy, C. L., Jackson, K. L., McKeown, R. E., & Waller, J. L. (1991). The CES-D as a screen for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636-641.

Gomez, R., Bounds, J., Holmberg, K., Fullarton, C., & Gomez. (1999). Effects of neuroticism and avoidant coping style on mal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305-319.

Haapa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 6 to 12: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44-1052.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University of Denver, Colorado.

Holmes, C. S., Yu, Z., & Frentz, J. (1999). Chronic and descrete stress as predictors of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3)*, 411-419.

Johnson, J. H. (1986). *Life event as stress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bury Park, CA: Sage.

Jolande, C., Van der Valk, Edwin, J. C. G., Van der Oord, Frank, C., Verhulist, Dorret, I., & Boomsma (2003).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stability and change i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American Child and Adolescence Psychiarty, 42(10)*. 1212-1220.

Jones, D. J., & Forehand, G. (2003). The stability of child problem behaviors: A longitudinal anaysis of inner-city African-American chi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2(2)*. 215-227.

Kadushin, A., & Martin, J.A. (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572.

Krenke, I.. S. (2000). Causal links between stressful events, coping style, and adolescent symptomat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3,* 675-691.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Luthar, S. S. (1995). Social competence in the school setting: Prospective cross-domain associations among inner-city teens. *Child Development, 66*, 416-429.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 A.: Havard University Press.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Peterson, P. L., Hawkins, J. D., Abbott, R. D., & Catalano, R. F. (1994). Disentanging the effect of drinking by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203-227.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ipple, C. & Luthar, S. S. (1998). *Long-term predictors of academic adjustment and high school dropout among inner-city adolescen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Robinson, N. S., Garber, J., & Hilsman, R. (1995). Cognition and stres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n depressive versus

externalizing symptoms during the junior high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453-463.

Straus, M., Gelles, R., & Steinmetz, 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Doublebay.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일 : 2005. 6. 14
게재결정일 : 2005. 11. 18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2, 381-396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1 year follow-up study

Eun Yee Kim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effects of poverty status, gender and life stre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were evaluated. Self report measures of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t 2 time points 1 year apart and their life stress for the 1 year period between the two assessment points were obtained from adolescents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an area with heavy concentration of low income famili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data from 336 adolescents(162 boys and 174 girls) who completed both assessments revealed that effects of poverty status and stres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and type of adjustment measure. For depression at time 2 after controlling for depression at time 1, significant main effects of gender and life stress were obtained, but only the main effect of life stress was significant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t time 2 after controlling for time 1. Gender × Stress interaction was significant for depression and Poverty Status × Gender and Gender × Stress interaction were also significant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Girls, compared to boys, were more vulnerable to life stress and poverty status.

Keywords : poverty, life stress, gender, adolescents, depression,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